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조치(17 차)

+주님의 평화

정부에 의해 발표된 긴급 사태 선언이 9월 30일부로 해제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사카부는 8월 2일부터, 효고현은 8월 20일부터 긴급사태 선포하에 들어가,  
오사카부와 효고현에는 미사의 공개를 중지한다는 교구의 판단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듭되는  
미사의 공개 중지의 판단에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공개미사의 중지 동안, 여러분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공동체에 대한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다시 함께 걸어 나갑시다.

오사카 교구에서는,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를 받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사카부와 효고현 미사 공개 중지 해제  
조치 13 차에 맞는 형식으로 공개미사 재개

소교구 사목 담당자 여러분은,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미사의 형태 등 최종 판단을 실시해  
주십시오. 정부는 겨울에 다시 감염이 확대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걸음을 옮겨갈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도와  
자제가 준비됩니다.  
감염대책에 주력하여 재확대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고 더불어 좋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와 기도 중에..